


실험결과보고서

21004 김민정

식물 관찰 프로젝트

실험일자	2026.05.27
실험목적	학교에 있는 여러 식물을 찾고 식물의 특징들을 알아본다.
실험준비물	카메라, 휴대폰
실험과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1. 학교를 돌아다니며 여러 식물들을 휴대폰을 활용해 촬영한다.2. 구글 사진 검색 기능을 이용하여 식물의 이름과 학명을 찾는다.3. 구글 사진 검색을 통해 이름을 찾았다면 식물의 특징을 찾는다.4. 구글폼에 찾은 식물의 학명, 식물을 찾은 위도와 경도, 특징, 느낀점을 적어 올린다.
고찰	<p>학교에 있는 여러 식물들을 찾아보고 촬영 하면서 학교를 지나다닐 때는 지나쳤던 화단이나 길에 생각보다 다양한 종류의 식물들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특히 분홍색 수국, 초롱꽃, 디모르포세카, 주황색 가자니아 등 꽃마다 모양이 많이 다르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사진을 찍으며 관찰 하며 각각의 꽃이 자신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특징이 곤충을 유인하고 생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깨달았다. 수국은 작은 꽃들이 모여 큰 꽃처럼 보이는 형태를 가지고 있고 초롱꽃은 종 모양처럼 아래를 향해 피어 있었다. 반면 디모르포세카와 가자니아는 넓은 꽃잎을 펼쳐 곤충이 쉽게 앉을 수 있는 꽃모양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차이에서 알 수 있듯 수분을 돕는 곤충들을 효율적으로 유인하기 위해 각자 다른 방식과 모양을 발달시켜 왔다고 생각했다.</p> <p>특히 꽃의 색깔에 따라 곤충이 선호하는 정도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이 궁금해졌다. 내가 관찰한 꽃들 중에는 흰색, 분홍색, 주황색 등 다양한 색의 꽃들이 있었는데 색깔이 곤충의 시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추가로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벌과 나비가 좋아하는 식물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인지까지 조사해 본다면 식물과 곤충이 함께 살아가는 생태계의 관계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p> 
추가탐구	<ol style="list-style-type: none">1. 꽃 색깔에 따라 꽃을 방문하는 곤충이 다를까? 곤충들은 꽃을 사람과 같은 방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시각 체계를 이용해 꽃을 구별한다. 벌은 파란색, 보라색, 노란색 계열의 꽃을 잘 인식하는 반면 빨간색은 잘 구분하지 못한다. 반대로 나비는 다양한 색을 구별할 수 있어 빨간색, 분홍색, 보라색 꽃에도 자주 방문한다. 따라서 꽃의 색깔에 따라 찾아오는 곤충의 종류와 수가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꽃의 향기, 꿀의 양, 꽃이 피는 시기 등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색깔만이 유일한 요인은 아니라고 한다.2. 나비나 벌이 좋아하는 식물의 특징은 무엇일까? 벌과 나비는 꽃가루와 꿀을 얻기 위해 꽃을 찾는다. 벌은 꿀이 풍부하고 여러 송이가 모여 있는 꽃을 선호하며, 특히 노란색이나 보라색 꽃에 자주 방문한다. 나비는 착지하기 쉬운 넓은 꽃잎을 가진 꽃을 좋아하고 긴 입으로 꽃 속의 꿀을 빨아 먹는다. 또한 향기가 강하고 꽃이 많이 피어 있는 식물일수록 곤충들을 더 많이 방문한다. 따라서 나비와 벌이 좋아하는 식물은 꿀이 풍부하고, 눈에 잘 띄며, 접근하기 쉬운 꽃 구조를 가진 경우가 많다.